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연구부

이재한 책임기술원

KASI : 30여년 천문대 역사와 함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궁금하군요.

이재한 : 천문대 근무를 시작한 건 1976년입니다. 74년에 국립천문대가 발족되고 소백산천문대 건설이 한창이던 때였죠. 그런데 사실 제 전공은 천문학과는 거리가 먼 전기입니다.

KASI : 전기라니 의외네요.

이재한 : 천문대라는 게 건물 만들어 망원경 올려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기계 설비를 마무리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엔지니어가 없으니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곳으로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근무 여건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무가 근무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에는 호롱불로 어둠을 밝히고, 직접 빨래하고 밥해먹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KASI : 많이 힘들셨겠네요. 후회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이재한 : 글썽요. 지금 생각해보면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곳을 선택했던 건 소백산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좀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소백산은 국립공원이 되기 전이어서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백산 사계는 정말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ASI : 별에 관심은 있으셨나요?

이재한 : 전공이 전진데요. 공무원 시절이었고 발령이 그리로 나니 간 것뿐이죠. 사실 소백산 올라가서도 한 동안은 사람들이 왜 별을 보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수개월간 천문학 하시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책을 보며 공부를 하다보니까 신비로운 학문 이면서 뭔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군요. 별을 본다는 자체가 재미있는 거고, 우주라는 게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게 소백산에서 6년을 생활했습니다.

KASI : 소백산 근무 이후 맡으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이재한 : 지내놓고 보면 새옹지마인데, 그 당시 개인적인 욕심은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 본부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러던 차에 맡게 된 것이 대덕전파망원경 사업입니다. 엔지니어 분야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전파망원경 끝나고 나서는 보현산천문대 건설 사업을 맡게 되었죠. 천문대 건설지를 보현산으로 선정하고, 망원경 발주하고, 도로 설계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KASI : 도로 설계까지도 직접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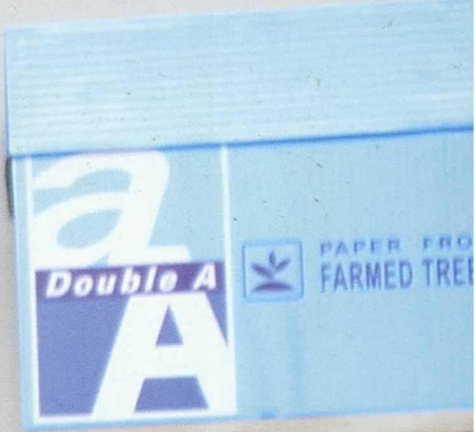
이재한 : 세부적인 설계까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용역 업체 선정하고 발주 내는 것까지가 제가 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도로 루트는 어떻게 잡고, 사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업체에 알려 줘야합니다. 그러니 관련 분야를 전혀 모르고서는 할 수 없죠.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KASI : 보현산으로 선정하기까지 여러 사이트를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 전국을 해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우선 1차로 지도에서 해발고도 6백 미터 이상인 산을 선정했습니다. 8백 개쯤 나오더군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광학망원경 특성상 광공해를 피하기 위해 도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제외하니 반으로 줄더군요. 그 다음 국토발전계획에 따라 고속도로나 공단이 건설될 곳도 제외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니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가 지도에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는 일만 남은 겁니다.

KASI : 그럼 100여 개의 산을 다 올라 다니셨다는 건가요?

이재한 : 최종 선정까지 4년 동안 이들 산을 다녔습니다. 3년 동



안 답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현산을 포함해 4곳으로 압축하였고, 이들 사이트에 망원경 들고 올라가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 실제 관측을 했습니다. 보현산으로 선정되고 나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토지 소유주를 찾아 해매 다니기도 했어요.

KASI : 우리나라 주요 천문 시설 중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군요.

이재한 :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보현산에서 내려와서는 현 연구원 본관 건물 작업을 했고, 21m 전파망원경 3대로 구성되는 KVN(Korea VLBI Network, 한국우주전파관측망) 건설 사업의 초기 진행에 참여하였고, 지금 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네요.

KASI :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어떤 것이죠?

이재한 : KVN 연구센터 건설과 외계행성탐색용 망원경 사업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쯤이면 연구원에서 제 일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분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든다?'해보세요.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망원경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어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는 아닌데 천문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고맙고, 그러한 일을 큰 문제 없이 해오고 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KASI :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한 :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그런 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재밌잖아요.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미로찾기나 퍼즐 같은 걸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당시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KASI : 추진 중인 사업이 거침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